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 설하다

불설아미타경소초

운서주평 지음 | 연관 옮김 | 불광 펴냄 | 3만 7천원



불교의 진리가 보석처럼 빼곡히 박혀 있는 <불설아미타경>은 제자들의 간청이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자진해 설한 이른바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이다. 아미타불과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설하고 일심염불을 통해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명나라 4대 고승으로 꼽히는 운서주평 스님이 구마라집 한역(漢譯) <불설아미타경>에 소초를 덧붙여 해설하고 상세히 풀이했다. 지리산 실상사에 머물며 역경과 선방 수행에 전념하는 연관 스님이 꼬박 2년에 걸쳐 국내 최초로 번역했다. 716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며, 정토교학의 이론과 실천을 모두 담아냈다.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설명하는 이 책 한 권만 정독한다면, <불설아미타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풀릴 것 같다.

이 책의 저자인 운서주평은 불교계 영원한 고전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집필한 중국 명

나라 말기 스님으로서, 17세에 이미 '사전'이란 칭호를 들을 정도로 박학했으며 문장과 덕행이 뛰어났다. 계율의 부흥과 정토법문의 제창, 살생 금지와 방생 권장 등 선과 염불과 계율에 두루 관심을 갖고 활약했으며, 항주 운서산에 일대총림을 창설해 크게 중풍을 떨쳤다. 운서주평의 <죽창수필>에 이어 이 책까지 번역한 연관 스님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인 관음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았으며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을 역임했다.

이 책 <불설아미타경 소초-자세히 풀이한 석가불이 아미타를 설한 경>은 경·소·초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큰 문단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대의(大意)를 종합적으로 밝히고(通序大意), 둘째는 문단을 나누어 문장을 해석했고(開章釋文), 셋째는 주(呪)의 뜻을 결론지어 해석했다(結釋呪意).

주된 내용은 다섯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부처님 일대교설에 따라 자성(自性)을 밝혔고, 둘째는 정토 공덕을 찬탄했으며, 셋째는 중생이 부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는 기존의 <불설아미타경>을 풀이한 책들이 문장을 간절하나 지나치게 간단해 그 뜻이 명확치 못함을 지적하며, 여러 전적과 수행문을 모아 종합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까이나 멀리까지 전해져 중생

을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가피를 청했다.

이 책의 요지는 한마디로 청명염불(稱名念佛), 일심불란(一心不亂), 왕생정토(往生淨土)이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칭송해, 흐트러짐 없는 일심의 상태가 되어,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이다. 청명은 왕생의 인(因)이요, 왕생은 일심의 과(果)며, 일심은 앞과 뒤를 아우르는 이 경전체의 골자다. 또한 이치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그 심오한 뜻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정토사상의 핵심을 꿰뚫으며 신(信)·원(願)·행(行)을 빠짐없이 밝히고 있다.

연관스님, 2년에 걸쳐 국내 최초 번역 정토교학의 이론과 실천 모두 담아

그렇다면 아미타경은 어떤 경전인가 <무량수경(無量壽經)><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함께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 가운데 하나로, 402년경 삼장법사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이 한역(漢譯)한 한역본의 문장이 가장 간결하여 일반 불교신도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독송되는 경전이다.

이 경의 근본 요지는 아미타불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장엄함을 설하고, 이곳 부처님의 광명과 무량무변한 수명과 그 세계에 태어나

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워야 하며, 만약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하면 입증할 때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러한 정토에 왕생하는 길이 바로 아미타불을 청명염불(稱名念佛)하는 데 있다는 정토신앙을 설하는 경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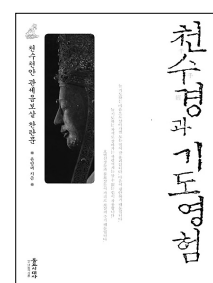
경 이름 <불설아미타경>은 '능설(能說)인 석가불이 소설(所說)인 아미타를 설한 경'이라는 의미이다. 곧, 이 국토의 석가모니불이 저 국토의 아미타불의 의보와 정보 장엄과, 신·원·왕생을 설한 경이다. 또한 '설'을 '열(悅, 기쁘다)'의 뜻으로 보기도 한다. 곧, '석가불이 아미타를 기쁘게 한 경'이라는 뜻이다.

▲저자 운서주평 스님은?
스님의 이름은 주평, 자는 불해(佛慧), 호는 연지(蓮池)다. 명나라 가정(嘉靖) 14년(1535)에 고향 인화현서 태어나 서른한 살 때 무문성전(無門性天)에게 출가했고 소암덕보(笑巖德寶)의 종을 이었다. 마흔네 살 때 항주 운서산 복호사 옛터에 총림을 이루니 스님의 교화도량인 운서사다. 스님의 교화 방법은 선학을 창도하고 계율을 부활했으며 정토법을 제창하고 살생을 금하고 방생을 권장하였다. 민력 43년(1615)에 돌아가니 세수는 81, 법랍은 50이었다. 향년 81세에 세종이 정묘진수(淸妙眞修)라는 시호를 내리고 범어집이 여선어록(御選語錄)에 편입되어 돌아가신 후에 성광(聖光)이 더욱 빛났다.

천수경 염불 기도의 가피력은?

천수경과 기도경험

윤영해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만 5천원



한국 불교서 빼놓을 수 없는 경전이 <천수경>이다. 모든 절에서 아침저녁으로 예불과 함께 독송하는 경전이기에 불자들뿐만 아니라 절에 가본 사람들은 한두 번은 들었을 경전이다. 쉽게는 또는 장남삼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리 수리 사바하'를 듣거나 읊어 보았을 것이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을 청송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통통력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왜 이 경전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석으로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꿈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관세음보살은 누구에게나 태양의 햇살같이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다.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어루만지며 보호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다.

<천수경>은 관음신앙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생활의 토대를 이루어 불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경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행이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과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문자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말씀(經典)인 이상 믿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 책은 불교 초심자들의 입문을 돕고자 강의 말투로 서술되었기에 초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문의 번역은 조계종에서 표준 번역을 내놓았기에 그것에 따르기로 했다.

이 책은 경문해설이 목적이어서 자세한 풀이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찬탄할 것이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삶에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편 건국불자회는 4월 9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정진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병행했다.

이것을 줄여 <천수다라니>라고도 하며 더 줄여 <천수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경전의 원전은 인도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와 번역한 한역본과 불공스님, 지토스님, 금강지스님이 번역한 심여 가지가 된다고 한다. 천수경은 먼 옛날 천광왕정 여래부처님이 처음 설하신 것이라고도 하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도 하는 설이 있지만 어느 것이 정확하지는 알 수가 없다.

2장에서는 경전의 구조와 의미를 새겨보고자 했다. 구조는 개경, 계청, 별원, 별귀의, 다라니, 찬탄, 참회, 준제주, 총원으로 개경은 진리의 사바하를 듣거나 읊어 보았을 것이다. 이 경전은 관세음보살을 청송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통통력을 그대로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왜 이 경전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석으로 외우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의 어머니 같은 마음을 기다리고 꿈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관세음보살은 누구에게나 태양의 햇살같이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는 보살이다. '천수천안',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중생을 보살피고 어루만지며 보호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다.

<천수경>은 관음신앙을 근본으로 삼아 수행생활의 토대를 이루어 불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경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행이 믿음(信), 이해(解), 실천(行), 성취(證)의 과정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문자와 개념으로 이루어진 말씀(經典)인 이상 믿음은 당연한 것이다.

이 책은 불교 초심자들의 입문을 돕고자 강의 말투로 서술되었기에 초심자들이 읽고 이해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문의 번역은 조계종에서 표준 번역을 내놓았기에 그것에 따르기로 했다.

이 책은 경문해설이 목적이어서 자세한 풀이로 신도들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이 책을 정독하고 나면 아하!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찬탄할 것이다. 모쪼록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읽어보면 삶에 무한한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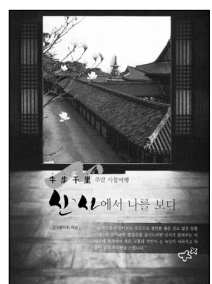
한편 건국불자회는 4월 9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정진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병행했다.

牛步千里로 20년간 돌아본 150여 명찰...48개 권역 세분화

(우보천리)

우보천리, 산사에서 나를 보다

건국불자회 지음 | 디플레네트워크 펴냄 | 2만 5천원



우보천리(牛步千里), 우직함 소꿉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다. 20여년 동안 한달도 거르지 않고 사찰순례를 진행해온 건국불자회의 우직한 행보에 어울리는 말이다.

건국대 출신 불자들의 모임인 건국불자회는 1997년 10월 모임을 만든 이래 20년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사찰을 순례한 흔적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제목은 <우보천리 주발사찰여행, 산사에서 나를 보다>이다.

이 책은 전국을 서울 등 전국 8개권으로 나눈 뒤 다시 48개 권역으로 세분화시켜 각 권역에 있는 사찰들을 빼어난 풍광 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책에 사용된 사진은 '송화가족'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김덕종씨가 1300여 사찰을 촬영한 사진 6만여장과, 사찰생태 연구가였던故 김재일 회장의 슬라이드 필름 5천여장을 제공받아 삽입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사찰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우선 '사찰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사찰의 의미와 기원을 알도록 했다. 이외에도 한국 사찰의 종류와 사찰 구조, 일주문서 법당까지 둘러보기 등을 실어 놓아 사찰참배전 예습 개념으로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사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사찰의 관계를 비롯해 한국 사찰의 종류를 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조계종 8대총림, 기도성지, 33관음 기도사찰 등으로 분류해 소개한다.

우재영 건국불자회 회장은 "사찰은 예로부터 우리 마음에 안식과 휴식을 주는 마음의 고향이자 쉼터가 되어 왔다. 이 책이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을 상기시켜주고 사찰여행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한층 높이는 매개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사찰을 100배 즐기기 위해선 그 안에 자리한 전각과 도량의 장엄함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알면 좋다. 대웅전, 극락전, 미륵전, 삼신당 등 전각과 범종, 목어, 죽비 등의 법구는 저마다 고유 의용도와 의미를 지녔다. 이들은 단순히 절의 구조를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다. 전각 이외에도



무량사의 극락전은 특이하게 2층 구조를 하고 있어 다른 사찰에서 보기 드문 건축물이다. 보물 356호로 조선중기 때 지어졌다.

탑과 불상, 탱화, 부도 등의 조형물은 종교적인 의미는 물론 예술성까지 겸비해 산사의 고즈넉한 매력을 더해준다. 이 책은 이러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준다. 보너스로 주변 문화유적이거나 불거리, 둘러야 할 이색명소, 관련 인물에 대한 정보 등 알짜 정보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건국불자회 원로회원인 해산 민윤식 거사(81)는 "일상에 찌든 번뇌를 내려놓기에 사찰

만큼 좋은 곳은 없다"며 "책 출간을 계기로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사찰을 순례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책 출간을 축하했다.

한편 건국불자회는 4월 9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정진수 건국대 총동문회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병행했다.

컴퓨터 공학자, 붓다에게서 길을 찾다!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인공지능의 대가이자 컴퓨터의 아버지로 불리는 폰 노이만을 계승한 저자가,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에게서 미래과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다!

지승도 저/신국판/284쪽/15,000원

사진으로 만나는 달라이 라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의 말씀!

소박하고 인간적인
달라이 라마의 모습과
깊은 울림과
감명을 주는 가르침을
담은 책!

행복하고 행복하고 행복하라

20여년 동안 인도에 머물며 달라이 라마와 티벳인들의 수행과 일상의 모습을 사진에 담은 작가가,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가르침을 한데 모아 엮었다.

이영자 사진/국판변형/전면컬러/280쪽/15,000원